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톈진사범대학교	기숙사비	793,000/한 학기
파견지역	천진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파견기간	한 학기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학과
성 별	여	학 년	3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20. 01. 16.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개강 전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에는 학생 모두가 HSK 시험과 흡사한 지필 고사를 본 후 지필 고사 결과에 따라 일단 선생님들께서 학생마다 2개의 반으로 정해놓습니다. 그 후에 한명씩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 두 분 정도 있고 학생별로 수업 할 교재를 읽어보게 한 후에 수준이 적당한 것 같은지 체크해서 지필 고사로 대충 정해놨던 두 반 중에 최종 반을 결정하게 합니다.

제가 수업을 들었던 반은 총 4과목으로 중합, 듣기, 한자, 말하기 수업이 있었습니다.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이 달랐기 때문에 총 4분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시간표는 학교에서 정한 후 통보해주며 거의 두 달간은 수업 시작 시간이 오전 8시 30분 이었는데 연구생과 본과생 학생들이 본 캠퍼스로 옮긴 후부터 수업시간이 오전 8시로 앞당겨졌었습니다. 중합 수업은 보통 HSK3~4급 수준의 문법 수업을 중심으로 이론수업을 했습니다. 그날그날 배우는 문법에 따라 작문숙제를 주기도 하였고 본문 내용을 요약하여 암기하는 숙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단어와 주요 문법의 쪽지시험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듣기 수업은 HSK3급 수준이었고, 선생님이 듣기 파일을 들려주면 각자 풀어보고 답을 같이 맞추는 식으로 했습니다. 거의 과제를 주시지 않았지만 가끔 선생님께서 교재에 없는 문제를 위챗 단톡방에 보내주시면 각자 듣고, 답을 적어 선생님께 개별로 보내는 숙제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말하기는 교재에 있는 짧은 문장을 읽는 연습도 시키고 단문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바꾸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으로 바꾼 단문 내용을 직접 본인 목소리로 녹음한 파일을 선생님께 위챗으로 보내는 과제도 자주 해주셨습니다. 네 과목 중 특히 말하기 수업이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요하는 수업이었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본 캠퍼스와는 전철로 약 20분 떨어진 빠리타이(八里台) 캠퍼스에서 지냈습니다. 기숙사가 좀 오래된 호텔이고 바로 앞에 수업 듣는 건물 하나 이렇게 두 건물밖에 없어서 대학교 캠퍼스의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본 캠퍼스가 아니다 보니 학생식당도 없고, 근처에도 식당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주로 입이미어로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1층에 작은 호텔 식당 같은 곳이 있지만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보 5분 정도의 거리에 吴家窑라는 전철역이 있기 때문에 본캠퍼스를 가기도 비교적 쉬운 편이고, 근처에 버스정류장도 꽤 있어서 교통편이 비교적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전거로 5~10분 거리에 나를 크고 저렴한 마트가 있어서 여기서 주로 생필품 같은 것을 샀습니다. 12월 초까진 많이 춥지 않다가 갑자기 추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의 영하 10도까지는 안 내려갔었지만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방 안에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추웠던 적도 있습니다. 매우 건조합니다. 제가 있는 기간 동안 비는 두 번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793,000원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통금시간 오후 11시		
주요사항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사 진 첨 부	침대 두 개, 책상과 의자 두 개씩, 작동이 되는지 모르는 티비, 테이블, 테이블 의자 두 개, 불박이 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박이장은 겹옷 몇 벌만 걸어놓기에 적당한 사이즈라 따로 옷을 넣어둘 수납장은 타오바오로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배정받았던 방은 바닥이 마룻바닥이 아니고 카페트라 청소를 따로 할 수가 없었는데 옮긴 방은 마루 바닥이라 공용 청소기를 가지고 와서 직접 바닥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방 안 청소는 직접 해야 하지만 가끔 화장실 청
	청소는 해주셨던 것 같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침대와 베개 커버를 깨끗한 것으로 교체해주셨습니다. 화장실은 샤워기가 없기 때문에 따로 룸메이트가 사온 필터 샤워기를 사용했고, 샤워기를 연결할 호스도 따로 타오바오에서 주문하여 직접 갈아 끼워 사용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사 진 첨 부

강의실 크기나 강의실마다 책상들도 다 달랐던 것 같은데 제가 수업받은 강의실은 인원이 20명이 넘는데도 강의실이 매우 작았고 책 한권 놓기에도 작고 불편한 일체형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도서관은 없으며 기숙사 1층에 식당이 있긴 했지만 한 번도 가서 밥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탁실은 아마 5층부터 9층까지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탁실마다 세탁기가 두 대씩 있습니다.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면 항상

사 진 첨 부

먼지가 많이 묻어 나왔었기 때문에 빨래 망에 넣어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돌돌이도 꼭 필요합니다. 다른 학교는 전기를 충전하거나 빨래할 때 금액을 충전해서 해야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곳은 물과 전기, 빨래를 모두 추가 비용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 진 첨 부

교환학생 파견 수기

모든 수업은 매일 오전 11시 30분이면 끝났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을 모두 제가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 있을 때 오전 수업을 최대한 없애고 모든 스케줄을 오후로 미루려고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짜여진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늘 규칙적으로 오전 7시에는 일어나야 했고, 수업이 끝나도 하루의 많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수업 내용을 복습하거나 마트 장을 본다면, 하다못해 주변 상가들을 보러 나가는 등 소소한 경험들을 쌓기 위해 자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혼자 밖을 나가는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한다는 것을 싫어했는데 이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아지면서 오히려 지금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의 두려움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천진사범대에 파견되는 학생이 저 한 명이라는 것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교환학생은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었음에도 혼자 타국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할 생각을 하니 매우 막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환학생 과정을 모두 마치고 보니 만약 이번 기회로 교환학생을 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굉장한 후회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환학생을 직접 가보기 전, 교환학생의 가장 큰 목적을 중국어 실력 향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직접 혼자 가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낯설었던 환경에 점차 적응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환학생이라는 경험 자체가 중국어 실력뿐 아니라 제 스스로를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 자체에 중국인과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이 없었다는 것은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빠리티이 캠퍼스는 모두 교환학생 온 외국인들 밖에 없어서 중국인 친구를 사귀기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메시지와 위챗 아이디를 적은 메모지를 천진사범대 본캠퍼스에 가서 한국어과 게시판에 붙여놓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중국인 친구에게 하나둘씩 연락이 왔었고 위챗으로 대화를 하다가 약속을 잡고, 자주 만나면서 중국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 중국인 친구와의 지속적인 교류는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중국어 실력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게 해주었고, 중국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매일 듣다 보니 자연스레 귀가 뜨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개월의 시간 동안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교환학생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가기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